

장흥 군내버스 공영제 진통

전국 첫 추진...회사측 영업보상 30억 요구

차고지 확보 등 막대한 초기 비용도 부담

장흥군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추진해 온 군내버스 공영제가 진통을 겪고 있다.

장흥군은 군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장흥교통의 잦은 노사갈등으로 주민 불편이 계속되자 지난 2005년부터 공영제를 추진해 왔다.

군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4천300만원을 들여 전문기관에 공영제 도입에 따른 용역을 의뢰했다.

또 예산 및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부대시설 설치(차고지), 차량구입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물론 공

영제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와 노선 개설 등에 대한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장흥교통측이 30년간 운영해 온 영업보상(30억원 상당)을 요구하면서 자산평가를 거부하고 있어 공영제 도입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군은 오는 2008년부터 북부지역 45개 복지노선을 대상으로 부분 공영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나 사측 동의를 얻지 못한 채 강제로 기존 노선을 인수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실정이다.

또 차고지 확보와 새 차 구입 등 50억원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 조달 문제와 장기 파업을 주도한 일부 노조원을 까지 가능한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하는 부담 등도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밖에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여론도 공영제 도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활동 '119 기마순찰대' 나가신다

나주소방서·자원봉사 운영

나주소방서가 여름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날 27일부터 '119 기마순찰대'(순찰대장 정신영 승마클럽회장)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 말 9필과 대원 10명, 소방차 2대 등으로 구성된 119 기마순찰대에는 나주시 해밀리 승마 클럽 회원 10여명도 자원봉사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마순찰대는 드림강 유원지 등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피서지를 순찰하며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재명 나주소방서장은 "119 기마순찰대가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문화 의식 함양과 소방서 이미지 제고 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나주=정철원기자 chung@

해남 겨울배추 20% 줄여 심는다

郡, 울 3,000ha 파종 계획

해남군이 '겨울배추 20% 줄여심기 운동'에 나섰다.

해남군은 올해 겨울배추 파종목표를 지난해보다 20% 줄여 3천ha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일부터 14일

까지 2주간 재배농민 2천400여 명을 대상으로 적정면적제배 결의대회 및 추산단지 재배농민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적으로 겨울배추 재배면적이 5천292ha로 2005년보다 24%가 증가해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사태를 빚었다.

한편 해남군은 양배추와 브로콜리, 무, 당근 등을 겨울배추 대체작목으로 꼽고 있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관상용 인기 붉은색 연(蓮)

선사 탄생지 일대에 초의홍련을 대량 번식시켜 화산백련지와 더불어 또 하나의 관광 명소로 가꾸어 갈 계획이다.

무안군이 신흥종 연(蓮) 개발에 성공했다. 초의 홍련으로 이름 지어진 붉은 색 연은 색이 진하고 오래 지속돼 관상용으로 가치가 높고, 잎은 부드러운 썸밥 등 가공용으로 활용이 기대된다. 무안군은 삼향면 초의

/무안=이원희기자 whlee@

여수·광양항 물동량 늘었다

상반기 1억여t ... 작년보다 7% 증가 유류·철광석 등 원자재 수입 대부분

여수항과 광양항의 물동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여수·광양항 물동량은 1억 200만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이상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 추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올 한해 2억t 이상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물동량이 늘어난 것은 유류와 철광석, 철제류 등 원자재 수입이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화물별로는 유류가 4천275만3천t으로 가장 많았으며 철광석 1천414만 9천t, 철제류 1천37만9천t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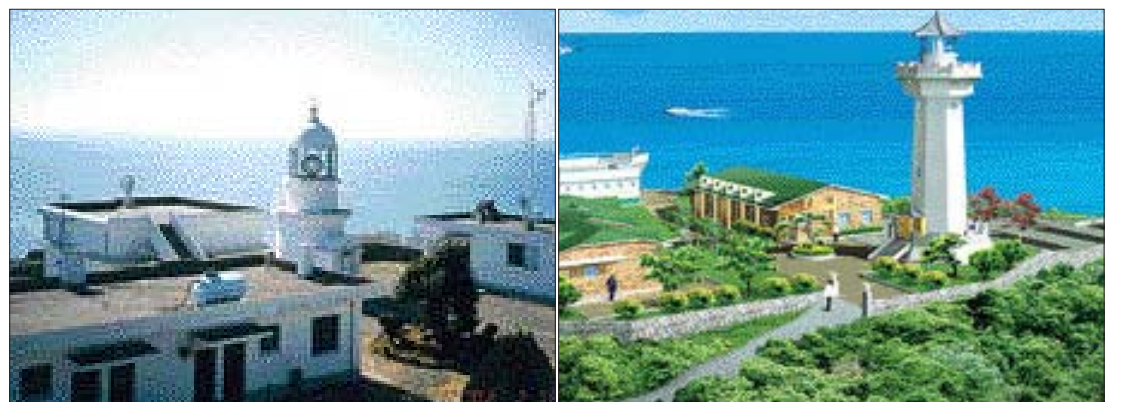
특히 여수항의 경우 지난해 66만3천t이던 유류 처리물량이 317만1천t

으로 급증했다.

이와 함께 여수·광양항을 입출입하는 선박수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703척 늘어난 2만7천223척으로 집계됐으며 원자재 수입이 늘면서 5만t 이상 대형 외항선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여수지방해양청 관계자는 "지난 7월 부분 개장된 중마부두 운영이 본격화될 경우 올 물동량은 개항 이래 처음으로 2억t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당사도 등대 전경(사진 왼쪽)과 새로 조성될 등대 조감도.

역사의 애환 서린 '당사도 등대' 새로 짓는다

<완도군 소안면>

목포해수청, 27억 들여 시설물 현대화 편의시설 등 대폭 확충 해양관광지로

역사의 애환이 서려있는 완도군 소안면 당사도 등대가 새로 설치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소안군도와 추자군도 사이 연안항로를 항해하는 선박 안전을 위해 당사도 등대의 노후된 시설물과 장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했다.

지난 1909년 처음 불을 밝힌 당사도 등대는 일제시대 일인들을 습격해 수십명을 사상케 한 항일투쟁의 역사가 서려 있다. 또 태평양 전쟁때는 일본군 통신기

지로 사용되다 연합군 폭격으로 등탑이 파손되기도 했다.

목포해수청은 27억원을 들여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 내년 11월께 새로운 등대 시설을 준공할 예정이다.

해수청은 당초 기존 시설을 철거할 계획이었으나 당사도 등대가 지난해 등대문화유산 제 23호로 지정됨에 따라 영구 보존하게 됐다. 새롭게 조성될 등대는 항로 표지의 기능성과 역사성을 강조해 높이 22m의 8각 모형등탑에 기와지붕으로 꾸며져 주변환경과 친화적 조화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최첨단 장비와 방파제 편의시설을 갖춘 새로운 등대가 준공되면 통항선박의 안전은 물론 해양관광지로도 인기를 모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목포대 '우수 인재 인증자' 9명 졸업후 전원 삼성전자 등 취업

작년 제도 도입후 성과

목포대학교가 지난해 처음으로 '우수 인재 인증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졸업생 전원이 취업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다.

목포대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우수 인재 인증제도'를 도입, 지난 2월 졸업한 인증자 9명이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KT 등에 전원 취업했다.

특히 일부 대기업에서는 목포대의

우수인재 인증제도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는 등 인증서가 취업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우수 인증제도는 지적 능력과 성실성, 봉사정신 등 품성과 외국어, 전산, 전공 관련 실무능력을 평가해 최우수 인재와 우수 인재로 구분, 졸업증서에 표기하고 있다.

목포대는 앞으로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인 영역별 이수를 실시하는 등 우수 인재 배출을 늘릴 방침이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경로당 '생생한 목소리' 직접청취 노인 복지정책 관련 책으로 냈다

이중윤 영광군의원

이중윤 영광군의회 의원(사진)이 최근 의회활동 과정에서 체험한 내용을 토대로 노인복지행정에 관한 책자를 펴냈다.

이 의원은 평소 군정 질의 등을 통해 현실과 맞지 않는 노인 복지정책으로는 초고속으로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해 왔다.

이 의원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영광군 도량면 지역 21개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현황 및 지원 실태, 이용 불편사항과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의견 및 제안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책자를 발간했다.



특히 이 책자에는 경로당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가 담겨 있어 향후 기초자치단체의 맞춤형 노인복지정책의 지침서로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이 의원은 "영광군의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등 노인 복지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탁상행정에 의한 노인복지행정을 지양하고 현지 방문을 통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전국 규모 학력경시·배구대회 상위권 순천 팔마중 신흥 명문 자리매김

순천 팔마중학교가 개교 7년만에 각종 학력 경시대회는 물론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에서 정상권 실력을 과시하는 등 신흥 명문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열린 전국 청소년 과학탐구대회에서 류현탁·조영진·오티나(3학년) 학생이 탐구토론 부문에 참가해 금메달을 각각 수상했고, 유병하(3학년)군은 항공과학분야 고무동력기 부문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또 팔마중 배구팀은 최근 강원도 속초에서 열린 제 41회 대통령배 전국 남·여 중고 배구대회에

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과학선도 시범학교인 팔마중은 순천·광양지역 과학교사들을 대상으로 각종 테마형 직무연수를 운영함은 물론 과학동아리·발명반 활동 등 내실있는 과학교육으로 지난해 교육부 지정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재연 교장은 "꿈을 갖고 스스로 노력하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한다"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육성에 전교직원이 심혈을 기울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해병대전우회 섬진강 수중정화 활동

해병대전우회 전남 연합회(회장 조복연)는 지난 1일 섬진강 상류인 곡성군 고달면 일대에서 수중정화 활동을 벌였다. 이날 수중정화활동에는 보트 6대가 동원되고 해병대전우회원 200여명이 참가해 폐 그물 등 각종 쓰레기 6t을 수거했다.

(사)해병대전우회 전남 연합회(회장 조복연)는 지난 1일 섬진강 상류인 곡성군 고달면 일대에서 수중정화 활동을 벌였다. 이날 수중정화활동에는 보트 6대가 동원되고 해병대전우회원 200여명이 참가해 폐 그물 등 각종 쓰레기 6t을 수거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순천 '움직이는 기적의 도서관' 버스 이름 '과란달구지'로 결정

순천시가 농·어촌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한 '움직이는 기적의 도서관' 그래픽 버스의 명칭이 '과란 달구지'로 결정됐다.

순천시는 400여건의 후보작을 심사해 허주영(순천 동산여중 1년)학생의 '과란 달구지'를 최우수작으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꿈꾸는 책 수레', '보물상자' 등 2건이 우수작에, '봉봉' 등 5건은 장려상에 선정됐다.

오는 8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과란 달구지' 그래픽 버스는 도서관이 멀거나 없는 지역의 초등 학교 분교, 마을회관, 사회시설 등 10여 곳을 찾아 멀티동화 상영, 책 읽어주기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게 된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